

보도시점 2026. 7. 22.(수) 12:00
(2026. 7. 23.(목) 조간)

배포 2026. 7. 22.(수) 09:00

과기정통부·경찰청,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 개최, 과학치안 연구성과 18종 전시

- 「AI로 여는 미래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AI 수사지원 △AI 현장지원 △AI 국민안전 △AI 로보틱스 △AI 모빌리티 5개 테마관 구성
- 과기정통부·경찰청 외 중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도 함께 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는 2026년 7월 22일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는 그동안 민생 침해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소개하며 과학치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치안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하여, 그간 축적 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인공지능 수사지원(Investigation) △인공지능 현장지원 (Partners) △인공지능 국민안전(Guardians) △인공지능 로보틱스(Robotics) △인공지능 모빌리티(Mobility) 등 5개 테마관을 구성해 분야별 첨단 치안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인공지능(AI) 수사지원’ 관에서는 △라만 분광 신호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약 성분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AI 라만분광기’ △한·독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허위 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 등 7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

‘인공지능(AI) 라만분광기’는 20종의 마약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약의 광원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을 분석해 신종·혼합 마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장 보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한·독 연구진이 함께 연구에 착수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와 인공지능(AI) 생성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국산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8월 한국과 독일 현장 실증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 엑스(X)-선’ 장비도 소개된다. 기존 투과형 엑스(X)-선에 후방산란 엑스(X)-선을 추가하여 유기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인공지능(AI)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마약류를 검출해 우편물 속 마약류 수색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공지능(AI) 현장지원’ 관에서는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4개 제품과 시스템을 선보인다.

미래치안정책국이 ‘자체 개발한 업무보조 AI 서비스’는 △치안지식 검색 △국회 요구자료 작성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찰업무에 맞춤형 AI를 적용해 경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플랫폼은 뇌심혈관계질환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찰관의 건강한 경찰 생활을 지원한다.

이어 ‘인공지능(AI) 국민안전’ 관에서는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과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AI 기술 등을 소개한다.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평·수직 등 정확한 초기위치를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동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1~’25년 개발한 불법 드론 조종 제어권 탈취 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 실전 배치하여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틱스’ 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관, ‘가상현실(XR) 사격체험장’을 통해 경찰업에 활용되는 로봇과 다양한 교육용 장비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AI)는 이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에 공통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접목하고, 경찰청 등 기술 수요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R&D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과학치안이 실제 치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정책실 지역혁신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 지 은 (044-202-4760)
		담당자	사무관	권 순 영 (044-202-4598)
담당 부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책임자	총경	김 인 병 (02-3150-1900)
		담당자	경정	이 재 훈 (02-3150-1998)

